“한일 불교계 원력 모아 불법 홍포”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27일 일본 도쿄 증상사서
양국 우호증진 · 평화공존 기원
진우 스님 “선명상 대중화” 강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본 도쿄 증상사에서 열린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 이후 기념사진을 찍는 한일 불교계 대표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한국불교와 일본불교가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양국의 우호증진 및 분단과 대립, 전쟁과 갈등을 고통받는 이들의 평화공존을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藤田隆乘])는 6월 27일 일본 정토종 대본산 증상사(도쿄 소재)에서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 발표로 진행됐다. 한일 양국 불교대표단 약 150명이 석한 이번 교류대회에서 한일 불교계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져온 신의를 바탕으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불교적인 혜안(慧眼)을 내어 두 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대회인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를 한 집안으로, 인류를 한 몸으로 보는 불교의 ‘원융(圓融)’ 정신과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쟁(和諍)’ 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전통인 선수행(禪修行)에 기반해 현대적 명상법으로 프로그램한 ‘선명상’은 종교를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근본이며,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선명상 대중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후지타 류조 스님은 “부처님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2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져 지리적, 민족적 장벽을 넘어 각자 독자적인 불교문화로 발전했다”면서 “현대적 곤경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일본 불교의 식으로 시작해 양국 여성부 회장의 헌다, 회장스님 인사, 축원문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이어 양측 대표단은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정토종 공생재단 이사장 사토 유키오 씨가 발제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일 불교계가 부처님의 자비 · 자애의 정신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인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보급에 노력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불법 홍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화성 공장 화재에 불교계 애도 잇따라

조계종, 희생자들 극락왕생 발원
태고종, 안전사회 위한 관심 촉구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애도의 메시지가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6월 25일은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 명의로 애도문을 발표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전지와 같은 신규 에너지원의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통해 불행한 희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관련 업계 역시 철저한 예방으로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애도문을 발표했다. 상진 스님은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19명을 포함한 2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바라며,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태고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6월 26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왕생성불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체건 수많은 대중이 모이는 어떠한 곳이든 생명을 담보할 안전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처럼 안타깝게도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산업현장의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진각종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위로와 함께 “이번 사고 역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으로부터 빚어진 참사”라며 “정부와 회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산업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14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 일정을 9월 10~14일로 확정했다.

임시회에서는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사회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 △영규대사 및 의승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 건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사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 공개

단일 의사결정 체계 구축 중점
총무원장 직속 기관 설립 ‘눈길’
7월 3일 회의서 세부 논의키로

현행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첫 그림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종단개혁 30년을 맞아 종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으로 종단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불교중흥을 향한 전법과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기본 행정부서를 통합해 단일화된 종단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법, 대사회, 문화콘텐츠 등 전문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직도에는 기존 포교원의 기능을 전법포교부로, 교육원의 기능을 수행교육부로 재편하는 등 기존 ‘12부실 17국’을 ‘11부실 17국’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연구와 인사교육, 출가장려, 콘텐츠 진흥, 종무지원, 건축불사를 신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총무원장 직속기관을 두는 것이 눈길을 끈다. 불학연구소와 포교연구실, 문화팀을 통합해 종단 통합 종책연구소를 출범하고,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총무원장 직속 연구기관인 ‘조계종 연구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무원장 직속으로 출가장려위원회를 출범, 출가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보실을 직속기관으로 둬 종단 및 불교의 대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해 교구 행정 연계 및 사찰 지원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사찰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교구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사찰 세무, 노무, 행정 지원 전담팀이 신설된다. 교구 행정을 강화하고 중앙과 교구 행정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종무원 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위원들에게 “3월 임시회에서 발의된 종헌 개정이 종헌 문턱을 넘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종헌 개정으로까지 가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논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디테일하게 고민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미래, 군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군승 7명, 진우 스님에 임관 신고
“전법에 선봉장 역할 해달라”



2024년도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종합행정학교에서 임관하는 7명의 신임 군승들이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임관 신고식을 가졌다.〈사진〉

악수로 군승들을 맞이한 진우 스님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명을 받아 뜻을 펼칠 훌륭한 장교이자, 불자와 종단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며 “부처님 법을 전파해 장병들이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군승들은 각각 소속과 근무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영관 김동규 군승법사는 “설레고, 걱정도 되지만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알리는 데 진력하겠다”고, 혜강 백준엽 군승법사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2024년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7명의 신임 군승들은 군불교 활성화를 사명으로 전법·포교의 길에 당당히 나서게 됐음을 부처님께 고했다. 김내영 기자

2024 청소년 마음등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빛나는 나를 위해
내 삶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2024년 4월 ~11월



2024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진행 일정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지역	사찰 · 단체	연락처
1	비 온 뒤 맑음	3월 5일(화)~4월 30일(화)	서울	정각사	010-6523-8889
2		5월 7일(화)~7월 16일(화)	서울		
3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 여행	7월 27일~28일(토일)	서울	관음선원	010-5327-8146
4		8월 17일~18일(토일)	서울		
5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지금 여기에, 숨과 쉼’	6월 22일(토)	서울	(사)한국명상상담심리학회	010-2653-3917
6		6월 29일(토)	서울		
7		7월 12일(금)	서울		
8		7월 13일(토)	서울		
9		9월 7일(토)	충남		
10		9월 14일(토)	전남		
11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7월 20일(토)	서울	금강선원 (탄허기념 불교박물관)	02-445-8486
12		8월 10일(토)	서울		
13	신통방통 육방통	8월 9일~10일(금토)	서울	충정사 (통담선원)	02-2279-5538
14		8월 24일~25일(토일)	서울		
15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7월 20일~21일(토일)	대전	(사)자비명상	010-5300-8085
16		7월 20일~21일(토일)	서울	(사)자비명상	010-9867-4221
17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7월 21일~22일(일월)	경북	자비선사	010-4838-8874
18		7월 27일(토)	서울		
19		8월 3일(토)	대구		
20	나를 찾는 선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7월 13일~14일(토일)	부산	(사)동련	010-5332-0853
21		7월 27일~28일(토일)	양산		
22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6월 7일~8일(금토)	서울	봉인사	010-2570-5585
23		9월 10일~11일(화수)	서울		
24	통(느낌)! 통(마음)! 행복 명상캠프	7월 20일(토)	전남	봉불사	061-454-2303
25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부모 · 자녀 1day)	8월 25일(일)	경기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26	마음 톡(TALK) 명상 명상아 놀자!	7월 12일(금)	부산	미타선원	010-3852-7118
27	청소년 마인드케어 명상힐링캠프	8월 15일(목)	울산	정토사	010-4662-0108
28	나를 개발하는 선 ‘득템명상’	7월 27일~28일(토일)	경기	온새미로붓다	010-9414-9331
29	Z & α 세대만의 ‘효’ 인성교육	8월 10일(토)	경남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010-3131-1319
30	청소년 행복찾기 선과 명상	8월 25일(일)	세종	보현정사	010-8777-4191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동련 · 금강선원 ·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봉인사 · (사)자비명상 · 자비선사 · 관음선원 · 충정사 · 정각사 · 봉불사 ·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 미타선원 · 정토사 · 온새미로붓다 ·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보현정사(※ 16곳 무순)